

도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올해 현장체험학습비·교복비에 210억 9700만원 투입...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목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비 지원 계획(안)'을 마련,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올해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113억3700여만 원, 교복비 97억 6,000여만 원이 각각 투입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고·특수

학교 수학여행 실시 학년 학생 전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11만4,000원·중학교 15만2,000원·고등학교 23만8,000원이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수학여행비 지원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감안, 2021학년도에 한해 일일형이나 교내체험학습에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학여행 추진시 지원 금액보다 경비가 많을 시에는 반드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교복 수학여행 및 대규모로 이동하는 확일적·답습적인 활동은 지양하고, 창의적인 체험이 가능한 소규모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도내 체험처 및 코스 활용을 적극 권장했다.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전)입생 전원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현물 지급으로 학교주관 공동구매 참여가 원칙이다.

이는 공정한 입찰을 통해 교복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착용 브랜드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위화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도내 학교 간 전입시에는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경우 이중 지원이 되지 않는다. 타시도에서 전입하거나 해외 편입생은 지원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각급학교 수학여행 및 지원비 집행의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정창규 교수팀 학생들 '두각'

김현승·손창완씨,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우수논문상 4단계 BK21사업 지원, 복합재료 응용 분야 연구 우수

전북대학교는 정창규 교수(신소재공학부) 연구실 학생들이 최근 열린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 김현승 석사과정 학생(에너지저장변환공학과)은 '비스무트계열 강유전체 산화물 나노입자를 이용한 나노복합체 기반의 환경친화적 유연 에너지 소자'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강유전체 세라믹과 고분자의 복합재료를 만들어 소자로 사용해 에너지 수확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연구다.

또한 손창완 학생(전자재료공학 4년)은 '실크 단백질섬유 기반 소재의 전기적 성능평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실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기기계결합 현



김현승 학생



손창완 학생

상을 밝힌 내용이다.

정창규 교수팀의 연구는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우수신진 연구자 지원사업의 연구자료를 받고 있다.

특히 김현승 학생의 연구는 4단계 BK21 사업(수소에너지 융복합 기술 혁신인재양성사업단)의 지원도 받고 있다.

정창규 지도교수는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는 창립 34주년 짝 되는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분야 소재, 부품, 장비 관련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주요 전문 학술 단체 중 하나로, 지도교수 두 명이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것을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국내 전기전자재료 및 에너지 소재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협력

전주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인 전주대 관광마케팅RCC(Regional Cooperation Center)이 지난 20일 관내 인바운드 해외 여행사 4곳과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위원 위촉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

전주교육대학교 천호성 교수가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최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체계화 및 집행 과정에서 조언을 얻기 위해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을 구성,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은 산·학·연 전문가,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획총괄 분과 ▲전환소통 분과 ▲지역전략 분과 ▲디지털뉴딜 분과 ▲그린뉴딜 분과 ▲안전망 분과 등 6개 분과로 구성된다.

천 교수는 뉴딜 국정자문 위원은 한국판 뉴딜의 발전전략, 정책방향 수립,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수정·보완 의견 제시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의 체계화와 실현에 자문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천호성 교수는 "뉴딜이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는 의미이고, 정부정책을 통해 궁극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며, "자문위원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올바른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정책 공유·확산 공감대 형성 '토론회'

도교육청, 장학관·사무관 등 총 48명 대상 토론회 교육과정 세움 기간 운영 내실화 지원방안도 논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교육정책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1일 2층 강당에서 장학관 21명, 사무관 27명 등 총 48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정책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운영했다.

주요 내용은 ▲2021 주요업무계획 안내 ▲지구살리기 환경생태교육 ▲새학년 교육과정 세움 기간 운영 ▲기타 협의 등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공교육 모델 창출, 자발적 참여·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된 민주시민 육성, 배움이 즐거운 학생·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함께

하는 학부모·공정하고 따뜻한 교육 행정·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학교문화 조성,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 있는 환경교육 전개 및 생태감수성 체내화를 위한 교육정책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울러 새학년 교육과정,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 등 학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세움 기간 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학관 및 사무관이 직무의 경계를 넘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국정원 부실한 불법사찰 정보 공개 ‘유감’”

김승환 교육감, 표명... 이번에 공개된 63건 중 김 교육감과 관련된 건 총 3건

김승환 교육감이 국가정보원의 부실한 불법사찰 정보 공개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김 교육감을 포함한 18명은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성 정보파일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관련 TF(테스크포스)를 운영, 19일 63건의 불법사찰 정

보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이번에 공개한 63건 중 김 교육감과 관련된 것은 총 3건이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는 맨 앞 장에 공개 범위 중 '일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중간에 파란색 필기기로 '김승환'이라고 쓴 것을 빼고는 공개한 사찰 기록이 전혀 없다.

김승환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심지어 2017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수사 검사가 저에게 보여 줬던 사찰 기록마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이 저를 사찰했던 기록이다"라며 "국정원은 국정원이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